

짧지만 길고 굽었지만 곧은 길

범어사 진입로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우 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일제 강점기 이후 급성장하여 역사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부산의 모체가 되었던 통래지역은 조선시대 도호부가 설치될 정도로 비중에 있는 도시였고, 무엇보다 신라 고찰인 금정산 범어사가 있어서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범어사는 해동 화엄종의 종주, 의상대사가 화엄10찰의 하나로 창건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엄과의 10대 사찰이 대개 그렇듯이, 국방의 목적도 겸한 전략적 사찰이었다. 10만의 왜구들이 동해안을 침범하여 신라를 위태롭게 할 즈음에, 금정산 밑에 범어사를 세우는 왜구들이 물러갔다는 창건설화가 전한다. 또한 조선시대 일진왜란 때는 서산대사가 이곳을 사령부로서 정하고 승의병들을 모집했다는 구국의 현장이기도 하다.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사찰들은 대개 높은 산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그래야만 저지대의 적군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고, 방어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어사 뒷산에는 금정산성이 쌓여져, 범어사는 동래 일대의 중심 산이기도 했지만, 금정산성 수호의 병참기지 역할도 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높고 급한 경사지에 사찰이 자리잡으면, 전략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출입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아무리 전략적 사찰이라 하더라도 경사지에는 불교의 성지로서 신도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했고, 이런 점에서 높은 곳에 위치한 산사들은 매우 불리한 입지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 산사들은 농성 유립 양반들의 행과 수탈에 시달려야 했다. 고성 옥천사와 같이 담과 건물을 높게 쌓고 문을 걸어 잠그면, 외부의 행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범어사 같이 대중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사찰은 그나마 불가능했다. 또, 깊은 산중에서 가람의 성스러운 영

입구부에는 많은 산문들이 겹겹이 세워져서, 가람을 상징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성스러운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얻는데 성공했다. 성스럽고 소중한 곳은 늘 겹겹이 싸여져야만 한다. 그 가운데서도 범어사의 진입로는 뛰어난 구조를 하고 있다. 수십 동의 건물들로 가득한 대가람이지만, 범어사의 건축 핵심은 바로 그 진입부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낮은 담장 적막함 빛어내고 두줄 가로수 길의 수평 넓혀 종교·건축·철학 잇는 '한국미'

역을 표시할 구조물도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저런 필요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산문들이다. 산문들은 흔히 산불교의 영향이라고도 말해지나, 사상적 배경보다는 위와 같은 필요성이 더 강했던 것 같다. 가람의 경계를 뜻하며 속계와 성소를 구별짓는 일주문, 33천 가운데 사천왕전을 뜻하며 가람의 수문장 역할을 천왕문, 또는 금강역사들의 금강문, 진리는 돌이 아니라 하나라고 살펴보는 불이문 등, 조선시대 가람의

우선, 3칸 돌기둥의 일주문부터가 범상치 않다. 보통 사찰의 일주문은 단칸이지만, 이곳은 3칸이다. 일주문을 지나면 계단 위로 천왕문이 나오며, 천왕문에 올라서면 멀리 불이문이 나타난다. 이곳이 바로 진입부의 플라이막스이며, 한국 불교건축이 성취한 가장 뛰어난 명장면 가운데 하나이다. 천왕문과 불이문 사이에는 아무 것도 없이 오로지 길 뿐이다. 이 길을 위해 나즈막한 담장을 쌓았고, 길 양옆으로

쪽 뻗은 나무들을 심었다. 그리고 바다를 세 개의 얇은 단으로 나누어 점점 높아짐을 강조한다. 그 뒤에 불이문이 있지만, 병풍 문 뒤로는 끝도 모르는 계단만이 계속될 뿐이다.

사람 키보다도 낮은 담장은 이 공간을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적막한 길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건축적 장치다. 그리고 길의 뻗어오름을 강조하기 위해 양옆에 줄지어 교목들을 심었다. 높은 가로수 옆은 길의 수평적 확장을 도와주며, 효과적으로 불이문에 도달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이기도 하다. 그리고 나즈막히 상승하는 바닥의 단들은 수평적 길이 수직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예비단계임을 암시한다. 그리고는 가파른 계단으로 연속된다. 이 곳에는 수평감과 수직감이 교차하는 공간적 율동이 있고, 교목의 그늘 사이로 밝게 빛나는 음영의 어우러짐이 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북적대도 이곳만은 조용해지는 신비한 적막이 있다.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이 길은 그다지 길지도 않고 딱딱하지도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짧은 길은 3단으로 나뉘고, 양옆의 낮은 담장이 시각적 길이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3단에 놓여진 세토막의 길들이 약간씩 어긋나며 휘어져 있다. 그러나 그 분절의 효과 때문에 전체적으로 곧아 보인다. 짧지만 길고, 굽었지만 곧게 보인다. 한국적 미학의 극치다.

이 황홀한 가람의 진입로는 비단 범어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함천 해인사의 감동적인 진입로, 통도사의 휘어진 진입로, 그리고 이름없는 산사 어디에도 발견할 수 있는 고즈넉한 길들이 있다. 조선시대 가람의 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그리고 지극히 건축적인 길들이다.



○한국사찰의 진입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범어사 진입로. 천왕문에서 불이문까지의 길에는 수평감과 수직감이 교차하는 공간적 율동이 있고 음영의 어우러짐이 있다. 3단에 놓여진 세토막의 길들은 약간씩 어긋나며 휘어져 있어 짧지만 길고 굽었지만 전체적으로 곧아보이는 한국적 미학의 극치를 보여준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쌍계사 승가대 도서관 개설

한국불교연 정병조원장 불서 1천여권 보시
연말 시설 확장...전산화 준비도 한창



정병조 원장(오른쪽)이 쌍계사 교무 황호스님에게 불서를 전달하고 있다.

4일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작지만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장이 승가대 학도들의 면학을 위해 쌍계사에 불서를 기증한 것. 정병조 원장은 이날 직접 교직원들을 하면서 모은 불서가운데 1차분 110종 221권을 쌍계사 승가대(학장 통관스님)에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불서는 주로 학술서와 석·박사 학위 논문과 경전류 등으로 불교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질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기증식은 정 원장이, 소장하고 있는 전문불서를 승가대에 기증하고 싶다는 내용을 본사에 전해오며 따라 이뤄졌다. 정 원장은 "불교학의 요람인 승가대에 반드시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많은 불자들이 법등 밝히기에 적극 동참하고 모든 승가대에 도서관이 설립돼 학도들의 면학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조 원장은 연말까지 1천여권의 불서를 더 전달할 계획. 또 "많은 책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분류가 잘 돼야 한다"며 "전문 사서를 파견해 도서관으로서 기본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지원도 약속했다.

연간 쌍계사 승가대학은 윤 연말 준공되는 유물전시관 2층에 대규모 도서관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위해 현재 쌍계사는 학인들이 볼 수 있는 전문 불서류에서부터 일반불서까지 다양하게 불서를 구입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컴퓨터 3대를 구입, 전산화에 위한 기초 준비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사찰도서관이 단순

법등을 밝히는 것은 불자의 의무이지 필수 조건이다. 법보시는 가장 소중한 보시이며 포교의 가장 기본적인 불사이기 때문이다. 최근 본사가 펼쳐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불서를 모아 보내지는 법등 밝히기 움직임이 불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번지고 있다.

한 창고열람실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불서를 비치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쌍계사의 자구책이다. 이날 도서관 전달받은 쌍계사 교무 황호스님은 "젊은 학인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불교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다"며 "기증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잘 활용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불서를 모아 사찰에 도서관을 꾸미자는 불자들의 원력은 이번 기증식을 계기로 새로운 물결을 이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새책 헌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 나온 불서 헌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령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동참인사
 -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 협찬: 교계 출판사 (사찰도서관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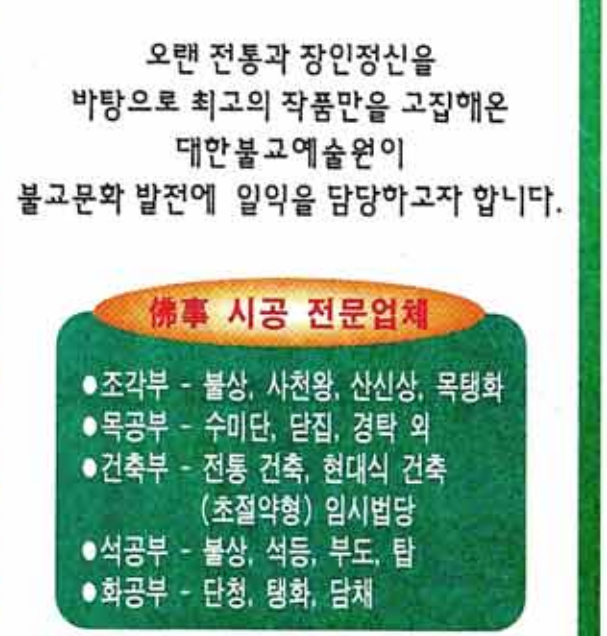
부처님을 향한 마음

대·한·불·교·예·술·원

오랜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작품만을 고집해온 대한불교예술원이 불교문화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佛事 시공 전문업체

- 조각부 - 불상, 사천왕, 산신상, 목탱화
- 목공부 - 수미단, 달집, 경탁 외
- 건축부 - 전통 건축, 현대식 건축 (초절약형) 임시법당
- 석공부 - 불상, 석등, 부도, 탑
- 화공부 - 단청, 탕화, 담채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불사에 관련해 문의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예술원

대표 한성용 회장

공장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무봉리 545-5
TEL : 02)930-1681, 0357)542-1681 FAX : 0357)543-3296 H.P : 011)336-5200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수성동 원당빌딩 201호
TEL : 02)736-9948